

인간의 존엄성

오늘은 롬 8:29 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εἰκῶν,, image)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Romans 8:29-30

For whom he did foreknow, he also did predestinate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인간이 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신적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묘사를 합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이 있으므로 선심을 잘 고양하고 계발하면 궁극적으로 신이 되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의 구원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구원의 길을 제시함에 있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현저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구조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가장 존엄한 위치에 올려 놓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합니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곳에서 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1. 형상의 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6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1 :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Genesis 1:26-27 (KJV)

And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창세기 1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데에서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image*, 헬라어로는 *eicon* 이라는 말입니다. 이 *eicon* 라는 말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즈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창문처럼 생긴 표식이 뜨는데 이것을 *eicon*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윈도우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대표하여 회화적으로 표시해준 것이 *eicon* 이라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안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eicon* 으로 자신을 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 속성을 가진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대표해서 회화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eicon*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 가면 윈도우즈 의 여러 기능들을 만나듯, 인간을 더듬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기 동안 형상(히, SEMEL)과 모양(히, DEMUT)을 다른 속성을 표시하는 말로 해석해 왔지만 - 다시 말하면 형상은 이성적 부분, 모양은 영적 부분을 나타내는 말 - 지금은 동일한 관념을 나타내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1:26 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창세기 1 :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다른 기사를 보면

창세기 5 : 1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 :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에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에서 ‘모양’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1:27 에서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인간 창조를 나타내면서도 ‘모양’을 빼놓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창세기 5:3 을 보면 ‘형상’과 ‘모양’이 순서가 바뀌어 모양과 형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5 : 3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물론 창세기 5 :3 은 아담이 셋을 얻은 것을 기록한 말이지만 용어의 사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동일한 관념을 나타낼 때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신학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의 인격의 어느 부분이 신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선심만이 신적 본질이라고 한다거나, 힌두교에서는 선한 성품이든 악한 성품이든 다같이 신적 본성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양하고 계발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전인(whole human)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whole human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 :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질그릇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긴 것은, 인간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면서도 철이나 동과 같은 금속으로 제조하시지 않고, 깨어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드신 것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의 전인(whole human)은 약하고 약한 질그릇으로 되어 있으니 네 안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글그래야 너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질 존재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질그릇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데에서 결정이 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인간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속성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은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행에 대한 명령보다 그릇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라는 명령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곧바로 복음전파를 명령하시지 않고,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질그릇이니 먼저 전능하신 이로 너의 그릇을 채워라. 너는 본체가 아닌 형상일 뿐이니, 능력의 본체인 성령으로 그릇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기 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충만, 다시 말하면 그릇에 채워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사역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이지 자신의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이 출중해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와서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1 : 22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존엄케 되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3. 다음에 우리는 더 깊은 계시적 사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창 1:26-27 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1 :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시로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 : 15 그(예수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¹⁵ Who <G3739> is <G2076> the image <G1504> of the invisible <G517> God <G2316>, the firstborn <G4416> of every <G3956> creature <G2937>:

형상 : 영어로는 image, 헬라어로는 *eicon*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둘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계셨고, 사람은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전문적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 안에 독생하시던 말씀이, 영원한 발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둘째 사람으로 계셨고¹,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²,

¹. 구원론 Bible Studies 2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공부하십시오.

요한복음 12 :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요한복음 12 :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또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14 :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인간은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세상에 살 때 영생을 가질 수 있고,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이고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εἰκόν, image)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 :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초월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미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².히브리서 1 :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χαρακτήρ, representation) 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있는가를 설명해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 :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승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 :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 :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둘째 사람 성자 하나님 예수는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제 2 위로 계시면서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점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존엄한 위치에 까지 승귀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깊고 깊은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둘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